

LNK(LoveNorthKorea) 주간기도(4월3일)

1. 북한 해외 노동자 10 만 명, 추가 파견 가능성 높아,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중국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



북한이 노동자 10 만여 명을 40 여개국에 파견 중이며 앞으로 추가 파견이 예상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평가가 발표됐다. 10 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은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북한 국경이 더 개방되면 40 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지난 1 월, 중국 길림성에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이 일어난 데 이어 아프리카와 중국 내 타 지역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 예수의 생명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참되신 그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 1 서 5 장 20 절 말씀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상납액을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올려드립니다. 타국 땅에서 노예와 같이 일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해외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사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중국을 위하여- 선교에 헌신한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은 여전합니다. 7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눈을 열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불어넣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문을 열어가고 계심이 놀랍습니다.”

“견고한 불교의 진이 있는 지역과 소수민족들이 많은 지역에서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의 사역을 거둬 가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함을 절감합니다.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곳 사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일꾼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골로새서 4장 2-3절 말씀으로 선교에 헌신한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한 선교하고 있는 중국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핍박의 상황속에서도 선교를 준비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부어 주소서.

소수민족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각 소수민족마다 토착신앙과 불교 그리고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구축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일꾼들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중국교회에, 중국의 소수민족과 선교사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극비리에 운영되는 17 호 관리소, 4 만 명 이상 수감



“그곳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사회)안전성 문건에도 정확한 지역명이나 산, 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곳에는 당과 수령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거나 반동적 행위를 한 대상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가, 한국행을 시도한 자들과 그 가족이 수용돼 있다. 이들은 짐승보다 못한 한심한 생활 조건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데일리 NK 가 17 호 관리소 위치 정보가 북한 내부에서 극비로 취급되며, 수감자 수는 2020 년 약 2 만 1 천 명에서 2023 년 약 4 만 4 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옳은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뜻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야고보서 5 장 10~1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수십만의 수감자들을 올려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기독교인과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이 속히 중단되게 하옵소서.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붙드사,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는 날,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로 인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북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한국의 6배



유엔 2023년 아동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7명으로, 약 6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6배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통계도 공개했는데,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8명,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은 1천명 당 29명, 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사망률은 4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올리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시고, 성경 배달과 가르치는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사이버 도둑질로 핵무기 개발 자원 40% 충당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안보리 경제 제재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 활동으로는 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없게 된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한 사이버 업체는 이 같은 북한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으로 묘사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약 1 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선교 기관과 사역자들이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불경건과 세속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이 시대에서 단정하고 올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며...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여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그의 친 백성으로 삼으려 하심이다”

디도서 2 장 11~14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핵 무기 개발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게 하옵소서. 선교 기관과 일꾼들 또한 북한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북한의 악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북한 선교가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신의주 태양아파트, 주거용 아닌 선전용 건물



최근 중국 대북 사업가들이 신의주 태양아파트를 버스 안에서 찍은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3 개 동 중 한 건물을 김일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원 모양으로 지은 태양아파트는 마치 전시품 같은 모습이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흔적이 없을 만큼 건물 관리에 힘쓴 흔적이 역력하고 1 층에 가게 간판이 보이지만 인근에 행인이나 주차된 차가 거의 없다. 북한 소식통은 태양아파트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기보다는 중국 쪽을 향한 선전용 건물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부한 척하나 실상은 가난한 북한에 영육을 만족케 하는 양식과 말씀이 공급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가 선포되기를 기도한다.

“보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떡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랑비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열심히 나에게 귀 기울이고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즐기라”

이사야 55 장 1~2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걸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썩어 있는 이중적인 북한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감시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백성의 소리를 북한 당국자들이 듣게 하시고,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양식과 생필품들이 공급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가 그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이 주께 나아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며,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